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연구*

— 한국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

한 기 련**

(e-mail : hanaro@gwnu.ac.kr)

<目次>

- | | |
|-----------------|-----------------------------|
| 1. 서론 | 2-3 세이초가 본 이토히로부미와 일본의 한국침략 |
| 2. 본론 | 2-4 세이초가 본 고종황제 |
| 2-1 작품속의 실제와 허구 | 2-5 세이초가 본 일본의 식민지 지배 |
| 2-2 세이초의 조선체험 | |
| | 3. 결론 |

キーワード:高宗皇帝(Emperor Kojong), 初代統監の伊藤博文(Hirobumi Ito, the first Japanese resident general in Korea), 日本帝國主義(Japanese Imperialism), 朝鮮侵略(Japanese invasion on Chosun Dynasty), 日本の植民地支配(Japanese Colonial Rule)

1. 서론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이하 세이초, 1909. 12. 21 - 1992 .8 .4]는, 한국에서 주로 사회파 추리소설 작가로만 널리 알려져, 세이초의 작가로서의 진면목을 알고 있는 한국인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세이초는 『일본의 검은 안개 - 모략 조선전쟁 -(日本の黒い霧-謀略朝鮮戦争-)』 (아사히저널[朝日ジャーナル], 1960. 2. 4.), 『반생의 기록(半生の記)』, (문예[文芸], 1963. 8 - 1965. 1), 『북의 시인[北の詩人]』 [별책문예춘추(別冊文芸春秋), 1965. 3], 『통감(統監)』 (별책문예춘추(別冊文芸春秋) 95호, 1966. 3)의 네 작품에서 한국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강릉원주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강릉원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근대문학

『일본의 검은 안개 - 모략 조선전쟁-』은, 세이초가 관련 신문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전쟁은 미국의 불순한 의도에 의해 일어났다고 하는 세이초 나름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정리한 것이다.

한국전쟁을 다룬, 『일본의 검은 안개 - 모략 조선전쟁-』을 제외한 세 작품을 읽어보면,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수개월 전부터 1945년 8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일본의 한국¹⁾침략과 미군의 점령 하에 있었던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세이초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통감(統監)』과 『북의 시인[北の詩人]』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 그려진 일본의 한국침략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에 대해 정리해 본다. 이와 함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세이초의 생각과 평가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2. 본론

2-1 작품 속의 실제와 허구

『통감(統監)』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전후한 일본의 한국침략 과정을 게이샤인 ‘나’ 곧 ‘코카[光香]’의 눈을 통해 묘사한 세이초의 단편소설이다.

주인공 임화를 화자로 하는 3인칭 시점의 『북의 시인[北の詩人]』과는 달리 『통감(統監)』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북의 시인[北の詩人]』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정확한 역사적 사건과 실존인물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작품 속에서는 역사적 사건과 허구를 적절히 배합하여 스토리를 전개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0.14.-1909.10.26., 이하; 이토]는, 1906년 6월 22일 동경에서 출발, 23일 저녁 시모노세키[下関]에서 군함 와이즈미[和泉]에 승선했다. 24일 오전,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기차를 타고, 오후 늦게 서울에 도착했다. 다음날인 25일 오후에 고종황제를 알현한 것으로 되어있다.

통감부 문서에 따르면, 한국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 제6차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 20분부터 남산의 통감관사에서 열렸다. 22일에 도쿄를 출발한

1) 세이초는 작품 속에서 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인용문과 인용문과 관련된 표현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이토가, 24일 오후 늦게 서울에 도착하여, 다음 날 오전에 협의회에 참석하고, 다시 오후에 고종황제(1852 - 1901.1.21: 이하 고종)를 알현하는 것은 당시 66세인 이토가 소화하기에는 힘든 스케줄이었다고 생각된다.

22일에 동경을 출발, 3일 만에 서울에 도착하는 것은 당시의 교통 환경으로 보더라도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소설의 뒷부분에서 내가 동경으로 돌아갈 때에는, 1906년 11월 21일 서울에서 출발하여 8일 뒤인 29일에 동경에 도착했다고 하는 부분으로부터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감(統監)』에서는 이토가 1906년 2월부터 4개월 동안 동경에 머무른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는 1906년 4월부터 2개월간 동경에 체류했다. 이러한 사실은 통감부문서인 ‘한국의 시정개선을 위한 협의회 제6회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다²⁾.

『통감(統監)』에서는, 일본군인과 경찰로 왕궁을 포위하여 강제한 을사보호조약에, 극렬하게 반대하던 한규설(韓圭晳)이 회담 중에 갑자기 일어나 황급한 걸음걸이로 회의실을 나가서, 병을 핑계로 회의에 불참한 고종을 알현하려다가 명성황후의 처소로 들어간 것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규설은 고종의 명령이라도 따를 수 없으며 목숨을 걸고서라도 찬성할 수 없다고 끝까지 반대하다가, 이토의 협박과 일본군인과 경찰에 의해 억류되었다³⁾’는 것이 정설이다.

한편, 소설 『통감(統監)』은 1906년 6월 14일, 하루도 여자 없이는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여성편력이 심하였던 이토가, 게이샤인 나[私]를 서울에 데려가려고 오오이소[大磯]의 집으로 부르면서 시작된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은 나와 나의 주변인물인 양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존인물이다. 『통감(統監)』속에서, 역사적 등장인물들과 일부 내용들이 날짜와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으며, 화자가 가공의

2) 출처: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주한일본공사관&통감부문서 (6)韓国ノ施政改善ニ関スル協議會第六回會議録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v_page=1&setId=-1&prevPage=0&prevLimit=&itemId=jh&types=r&synonym=off&chineseChar=on&brokerPagingInfo=&levelId=jh_091r_0060_0060&position=-1

3) 출처: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대사연표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v_page=1&setId=-1&prevPage=0&prevLimit=&itemId=tcmd&types=&synonym=off&chineseChar=on&brokerPagingInfo=&levelId=tcmd_1905_11_17_0020&position=-1

인물이라 할지라도, 『통감(統監)』에 묘사된 역사적 사건은 사실에 입각하여 쓰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압 하에 어전회의가 열려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다. 일부 개인의 행적에 관한 묘사가 다르지만, 역사적 사건은 역사적 기록과 소설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이초는 『통감(統監)』 속에서, 주를 사용하여 역사적 사건에 대해 보충 설명했다. 이는 그가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편, 작가와 1인칭 화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작품속의 화자가 여자일지라도 화자 ‘나’를 세이초라고 보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나’의 이야기는 세이초의 생각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통감(統監)』과 『북의 시인[北の詩人]』 속에 묘사된 ‘일본의 한국침략과 일제강점기에 대한 화자의 표현과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세이초의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2세이초의 조선체험

『반생의 기록(半生の記)』에 의하면, 1934년 6월 34살의 세이초는 후쿠오카의 연대에 재소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의 용산으로 건너와 만 2년 동안 군복무를 하게 된다. 용산에 근무할 당시에는 약품 구입을 명목으로 수시로 외출했으며, 1944년에는 전라북도 정읍 소재 사단의 의무병으로 복무했다.

아래의 인용문은 『반생의 기록(半生の記)』에 나오는 문장으로, 같이 소집된 동료와 세이초와의 대화이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재소집되기 전의 일본에서의 세이초의 사회적 위치와 그가 재 소집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자네, 교련에는 자주 나갔는가?”라고 물었다. “열심히 나가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아아, 그래서 끌려 왔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이 한마디는 지금도 귓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교련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본보기로 전쟁터로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일이, 시청의 병사에게는 가능했던 듯하다.

<松本清張(1974)、『半生の記』、松本清張全集34 文芸春秋、p45>

시청의 일개 직원의 사사로운 결정으로 인해 전쟁터로 끌려갈 정도로, 당시 일본에서 세이초가 차지했던 사회적·경제적 위치는 보잘 것 없었으며 하찮았다. 재소집된 세이초가 배속된 부대는 패전을 거듭하던 뉴기니아의 전쟁터로 끌려갈 예정이었다. 일본해군의 패전으로 인해 뉴기니아로 갈 군함이 없어서, 세이초의 부대는 다행스럽게도 서울에 남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 주둔할 당시의 생활과 심경을 비교적 상세하게 남겨 놓았는데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그가 한국과 한국에서의 군생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용완장을 차고 있었기에, 나는 시내의 어디든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다. 일본인 거리보다도 조선인 거주 지역을 배회했다. 종로근처의 뒷골목은 이국적인 기분을 맛보게 해주었다. 다만 그런 거리를 혼자서 배회하고 있으면 헌병들의 검문을 받을 염려는 있었다.

<松本清張(1974)、『半生の記』、松本清張全集34 文芸春秋、p49>

의무병이었던 세이초는 의약품 구입을 명분으로 서울 시내를 이곳저곳 거닐 수 있었다. 그는 일본헌병들의 검문을 받을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거리보다도 조선인 거리와 종로 뒷골목을 즐겨 찾았다. 그는 헌책방에서 소설 같은 것을 사올 수도 있었지만 사회가 그리워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사지 않았다고 한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세이초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군 생활에 임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나는 막사 주위를 태연하게 걸어 보았다. 목책은 낮았다. 바로 앞에는 하얀 옷을 입은 조선인이 걷고 있는 도로가 있었다. 목책과 도로의 사이에는 1미터 50정도의 도랑이 있었다. 그 도랑은 그다지 깊지 않았다. 나도 그 정도는 뛰어 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며칠 동안이나 눈짐작으로 재어 보았다. (중략)

나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그 장소를 조사하며 돌아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다. 만약에, 어떤 조건이 더해졌다면, 나는 탈영병이 되었을지도 몰랐다.

<松本清張(1974)、『半生の記』、松本清張全集34 文芸春秋、p48>

세이초가 근무하고 있던 용산 소재 일본군기지의 담은 높이가 낮았다. 이 담과 조선인들이 확보하던 영외의 도로는 불과 1미터 50센티 정도의 도랑만이 있을 뿐이었다. 당시 세이초는 일본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여 탈영을 자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생활에 어떤 조건이 추가되었다면 탈영을 감행했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에서, 비교적 외출이 자유로웠던 세이초이었지만, 군 생활에 근본적으로 적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세이초는 일본인이면서도, 군대생활은 물론이고 당시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에든 제대로 동화되어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일본사회보다는 피지배 민족인 조선사회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세이초가 일본사회에서나 군대에서 비주류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그가 일본인이기는 하지만, 의무병으로, 군대에서 높은 계급에서 당시의 한국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것도 아니며, 눈높이도 비교적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⁴⁾

2-3세이초가 본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와 일본의 한국침략

이토에 대한 한일양국의 평가는 매우 극단적이다. 이시카와 타쿠보쿠는 일본의 한국침략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이토를 처단한 안중근의사의 심정을 헤아리는듯한 단가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타쿠보쿠조차도 이토를 일본의 위대한 정치가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단가를 남긴 사실과, 이토의 초상화가 일본에서 천엔권에 실렸었다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이토의 평가와 관련된 한일양국의 입장 차이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통감인 이토님이나, 야마가타[山県]님이나 자신들이 메이지유신의 지사라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라의 위기에 목숨을 걸고 일해왔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보면,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일본에 대항하고 있는 폭도도 지사(志士)가 되며, 하물며 조약에 반대하여 약을 먹은 관리들을 임금님께서서

4) 島田雅彦·川村湊·宮田稔(2011) 「座談会東アジアに向けた清張のまなざし」 『松本清張研究』 [第12号]、北九州市立松本清張記念館、p 11.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높은 관직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일본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나라의 국민도 자신의 나라를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보호조약이 조선의 외교권을 전부 일본에게 양도한다는 것이기에, 그렇게 되면 독립국이 아니게 됩니다.

<松本清張(1974)、『統監』、松本清張全集38文芸春秋、p290~291>

위의 인용문은 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힌 것이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 침탈에 대해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이 항거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들의 행동을 높이 사는 임금님의 태도 또한 조선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결국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지켜 온 메이지유신의 지사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모순된 행동 또한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세이초는 을사늑약으로 인해, 조선이 외교권을 빼앗김으로써 독립국의 지위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내가 통감과 단둘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자, 통감은 쓴웃음을 지으며, 네가 말하는 그대로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일본이 언제까지나 조선을 뺏을 수가 없게 된다. 우리들은 일본인이기에 다른 나라에게 약간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감이 얼떨결에 일본이 조선을 뺏는다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아! 역시 그렇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뺏게 된다면, 이제 안심해도 되겠네요. 임금님도 필요 없게 되고, 지금처럼 소동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통감은 당황하여, 아니 뺏는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 조선은 일본이 뒤를 돌보아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마치 어린 게이샤의 뒤를 돌보아 주는 것처럼 이라고 말하고는 웃으시며,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松本清張(1974)、『統監』、松本清張全集38文芸春秋、p291>

위의 문장을 통해, 세이초는 이토가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항일운동을 억누르며 조선을 빼앗으려 하는 일본을 비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조선을 침략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일본이 조선의 뒤를 돌보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토와 일본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임금님에게 달려가, 황태자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돈을 물 쓰듯이 하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 계시니,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불러들여, 확실하게 감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억지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통감의 행실을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松本清張(1974)、『統監』、松本清張全集38文芸春秋、p292>

이토가 하루도 여자 없이는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호색한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메이지천황도 알고 있었을 정도라고 한다. 작품 속에서, 화자인 ‘나’ 또한 이토가 통감으로 부임하면서 게이샤였던 나를 서울까지 동행한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토의 부인 우메코[梅子]조차도 이토의 호색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만큼 그가 여자를 좋아했다는 사실은, 당시는 물론이고 오늘날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토가 고종에게 조선 황태자가 돈을 물 쓰듯이 하면서 방탕한 생활에 빠졌다고 비난하는 그의 이중성을, 세이초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오동나무 상자에는 인삼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손에 들려 있는 하얗게 말라비틀어진 사람 모양의 인삼이, 마치 깡마른 조선국민처럼 보였습니다.

<松本清張(1974)、『統監』、松本清張全集38文芸春秋、p313>

작품 속에서 코카는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이토의 부인 우메코[梅子]에게 인삼을 귀국 선물로 가져왔다. 우메코의 손에 들려있는 하얗게 말라비틀어진 인삼이, 코카의 눈에는 당시의 깡마른 조선국민처럼 보였다는 표현을 통해, 세이초가 일본의 조선침략이 조선인들에게 매우 혹독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이초는 일본의 한국침략과정과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매우 상세하게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세이초가 본 고종

최근에 고종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지만, 얼마 전까지 일본의 한국침략과정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무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통감』을 보면 세이초의 고종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속에 그려진 고종의 모습과 그에 대한 ‘나[私]’의 생각을 통해, 세이초의 고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임금님은 4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잡한 한국정치의 가운데 있으며 대원군과 명성황후 일족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술책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부침해왔기 때문에 양심은 피폐되고, 분별력은 약해졌으며, 단지 지독한 독선에 빠져있다.

<松本清張(1974)、『統監』、松本清張全集38文芸春秋、p287>

위의 인용문은, 『통감』 속에서 이토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이다. 이토는, 임금님은 오랫동안 파벌정치에 시달려 지금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사리 분별력이 없으며 지독한 독선에 빠졌다고, 고종을 폄훼하고 있다.

아래의 첫 번째 인용문은, 하야시[林]공사가, 고종에 대해 이토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아카이시 헌병사령관과 마루야가, “지금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항일운동은, 명성황후에게 조종당하는 고종이 뒤에서 부추기고 있으며, 조선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이토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다.

아무래도 임금님은 일본이 강요한 한국보호조약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 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조약에서 벗어나려고 안절부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왕비가 있어 고종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음모를 잘 꾸미는 사람이기에, 주의해서 임금을 잘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松本清張(1974)、『統監』、松本清張全集38文芸春秋、p286>

그래서 무관심한 듯이 이야기를 듣자니 각지의 폭도는 철저하게 토벌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일본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 놓지 않으면 조선인은 질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수상한 것은 임금님으로, 이번의 폭동도 임금님이 뒤에서 그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아카이시[明石]헌병사령관과 마루야마[丸山]가 말했습니다.

<松本清張(1974)、『統監』、松本清張全集38文芸春秋、p285>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하야시 공사와 아카이시 헌병사령관의 보고는 서로 모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야시공사의 보고대로 고종이 사리분별력이 없으며 지독한 독선에 빠져 있었다면,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긴 일로 곤란해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아카이시가 보고한 것처럼, 사람들을 부추겨 일본에게 저항하도록 유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인용문에 따르면, 이토를 비롯하여, 하야시공사, 아카이시 헌병사령관 그리고 마루야마까지 한결같이 고종을 비난하며, 폄훼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고종에 대해 이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통감과 일본의 관헌들은 임금님을 험담하지만, 임금님은 일본의 힘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통감의 요구를 빈둥빈둥 피하려고 하고 있다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松本清張(1974)、『統監』、松本清張全集38文芸春秋、p291>

일본이 하루가 다르게 한국을 압박하여, 결국에는 외교권마저 빼앗아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짐과 신민들은 하늘을 보고 통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국가들은 한국의 독립을 도와주기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나와 모든 백성들은 만세까지 그 공덕을 기릴 것이다.

<松本清張(1974)、『統監』、松本清張全集38文芸春秋、p301>

고종은 어떻게든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썼다. 하지만 헤이그 밀사사건 등, 고종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양한 시도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 작품이 쓰인 당시의 고종에 대한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고종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세이초는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고종의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고, 결국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된 이러한 고종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고, 안타까워하는 ‘나’의 모습을,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나는 통감의 그러한 노고보다도 임금님이 가여우셔서, 다른 방에 돌아오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松本清張(1974)、『統監』、松本清張全集38文芸春秋、p309>

‘나’를 통해, 이토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한 고종을 안타까워하는 세이초의 심정을 묘사한 것이다. 위의 문장을 통해서도,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해, 세이초는,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완용과 송병준은 앞장서서 고종의 퇴위를 주장했다. 송병준은 고종이 헤이그 밀사사건을 비롯하여, 모두 15회에 걸쳐 일본을 배신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고종에게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천황에게 사죄를 하거나, 일본군 하세가와[長谷川] 대장의 군문에 나아가 사죄하라고까지 고종을 압박했다⁵⁾”고 한다.

이토가 조선을 빼앗으려고(統監が思わず口をすべらして朝鮮を取るといわれたので)⁶⁾ 힘쓰는 모습보다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고종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 고종에 대한 세이초의 평가와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세이초에 대해, “세이초의 이웃나라에 대한 스탠스, 바라보는 시각은 일본문학사 중에서 상당히 특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재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⁷⁾

2-5 세이초가 본 일본의 식민지 지배

5) 尹炳奭(1984.1) 『대한제국의 종말』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p153.

6) 松本清張(1974)、『統監』、松本清張全集38文芸春秋、p291

7) 島田雅彦·川村湊·宮田穂榮(2011) 「座談会東アジアに向けた清張のまなざし」 『松本清張研究』 [第12号]、北九州市立松本清張記念館、p9.

『북의 시인[北の詩人]』은 1962년 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일본의 「중앙공론(中央公論)」에 연재되었다. 세이초는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부터 1953년 8월 임화(林和: 본명 林仁植)의 죽음까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한다.

『북의 시인』 속에 나타난 일제의 식민 통치와 관련된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세이초가 일제의 한국 식민지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받아 들였나⁸⁾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치장 앞을, 간수에게 양어깨를 부축 받으며 지나가는 너털너털해진 사람을 보자, 임화는 얼굴을 가리고 싶어졌다. 하룻밤동안, 고통에 찬 신음 소리가 귀를 떠나지 않았다. 조용해진 다음 간수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한참 뒤에 의사가 달려간다. 드디어 유치인의 눈을 피해 시체가 실려 나간다. 유치인은 그리는 동안에 임시로 산책을 위해 옥상으로 끌려 나간다. 처음에는, 옥상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 이유를 임화는 알지 못했다. 생각지도 못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松本清張(1973)、『北の詩人』、松本清張全集17 文芸春秋、p51>

위의 인용문은, 『북의 시인』 속에서 임화가 유치장에서 경험한 것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일제 강점기 하에서의 유치장의 상황을 표현한 부분이다. 당시 유치장에서는 무자비한 고문이 행해졌으며,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사실을 작품 속의 임화를 통해 세이초는 이야기하고 있다. 유치인들의 눈을 피해 시체를 운반하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유치장의 실상을 세이초가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

일본제국주의가 거침없이 세계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우선 1931년에 만주침략을 개시하여, 중국에 대해 한층 대규모의 약탈전쟁을 일으켜, 모든 종류의 진보적인 운동과 진보적 문학에 대한 보다 가혹한 압박에 착수했다. 실로 이때부터 조선민족의 희생을 토대로 침략전쟁을 성취하고자 하는

8) 세이초가 본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한기련(2012) 『북의 시인』 연구(일본언어문화 제22집, 일본언어문화학회, pp673-691)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기에 본고에서는 간략하게 정리했다.

9) 한기련(2012) 『북의 시인』 연구, 일본언어문화 제22집, 일본언어문화학회, pp687-688

일본제국주의의 야망은 노골적으로 조선반도에서 실행되었고, 민족 생활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속으로 빠져 들었던 것이다.

<松本清張(1973)、『北の詩人』、松本清張全集17 文芸春秋、p23>

위의 문장을 통해, 세이초는 일제가 일으킨 모든 전쟁이 침략전쟁이자 약탈을 위한 전쟁이었으며, 그 전쟁은 당시 우리 민족의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며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해방되었을 때, 조선인민이 얼마나 기뻐했었는가? 노예의 생활, 불길한 악몽, 암흑의 조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생활이 주어진 것입니다. 굴욕적으로 짓밟힌 조선은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들은 잃어버린 모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빼앗긴 성을 자신의 손에 되찾았습니다. 조선의 문화를 파괴한 일제의 지배자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친일파 암살명부가 만들어지기도 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 열광적인 기쁨은, 마침내 조선이 독립되었기 때문입니다.

<松本清張(1973)、『北の詩人』、松本清張全集17 文芸春秋、p17>

일제는 강점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우리말을 금지하고, 성을 금지하는 등 고유문화를 파괴하는 지배정책을 취했다.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조선은 암흑이었으며, 조선백성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요당했다. 위의 인용문으로부터 세이초는 이 모든 내용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이초는, 일제강점기에 대해 일본인으로서의 보기 드물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세이초는 일제강점기동안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내용과 그 변화과정은 물론 그 목적 나아가 구체적인 탄압방법까지도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일제의 한국침략과정과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세이초의 평가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통감』과 『북의 시인』 속에 그려진 대부분의 사건과 그와 관련된 인물은, 역사적 사실과 그 사건과 관련된 인물과 일치한다. 따라서 『통감』과 『북의 시인』은 실존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감』속에서 참정대신 한규설 등과 관련된 중요한 일부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

셋째로, 세이초는 이토를 중심으로 한 통감부, 이완용과 송병준을 비롯한 한국의 을사오적들의 역할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고종을 무능한 국왕으로 치부하고 있었던 일제와는 달리, “임금님은 일본의 힘을 어떻게든 벗어나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용기 있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王様は日本の力を何とか撥ね返そうと一生懸命になっている勇氣のある方だと私は思いました。]”라는 『통감』속에서의 표현으로부터, 세이초는 고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명성황후를 민비로 부르는 등, 일제가 우리나라를 폄훼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일 양국간에 문화적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 않았던 1965년에 소설이 쓰인 사실을 감안하면 세이초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넷째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뒤에 창작에 들어가는 세이초의 창작태도가, 한국과 관련된 작품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인 사실에 허구를 가미함으로써, 작품의 극적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1905년의 을사늑약, 그리고 고종의 퇴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토의 주도하에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세이초는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동안에 이루어진 정책들이 당시의 한국인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들이었으며, 독립 운동가들을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문을 가하는 등, 매우 혹독하게 탄압했다는 사실을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이초가 고통 받는 당시의 한국인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후에 규슈 고쿠라[小倉]에 세이초기념관이 설립되는 등의 사실로부터, 그가 작가로서도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마쓰모토 세이초 지음 김병걸 옮김(1987) 『북의 시인 임화』 미래사, pp1-332
한기련(2012) 『북의 시인』 연구, 일본언어문화 제22집, 일본언어문화학회, pp687-688
尹炳奭(1984.1) 『대한제국의 종말』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p15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주한일본공사관&통감부문서 (6)韓国ノ施政改善ニ関スル協議會第六回會議録
근대사연표

松本清張(1973) 『北の詩人』松本清張17 文芸春秋, pp6-190
_____ (1974) 『日本の黒い霧』松本清張30 文芸春秋, pp3-482
_____ (1974) 『半生の記』松本清張38 文芸春秋, pp5-85
_____ (1974) 『統監』松本清張38 文芸春秋, pp277-313
島田雅彦·川村湊·宮田稔(2011) 「座談会東アジアに向けた清張のまなざし」 『松本清張研究』
[第12号]、北九州市立松本清張記念館、p9.
現代朝鮮研究会編(1954) 『暴かれた陰謀』駿台社, pp1-148

논문 투고 일자 : 2018. 09. 30.
논문 심사 일자 : 2018. 11. 07.
게재 확정 일자 : 2018. 11. 09.

 <要旨>

 松本清張研究
 一韓国と関連のある作品を中心に一

韓基連

本稿は、韓国と関連のある松本清張の作品のかかて『日本の黒い霧 - 謀略朝鮮戦争-』をのぞいた作品を中心に、作品の中に描かれた日本の朝鮮侵略と関わった歴史的な事件について考察した研究である。また歴史的な事件と関連した人物たちに対する作家の考えと評価にも触れた。

『統監』と『北の詩人』は、実存人物と歴史的な事実をもとに書かれたことがわかった。また、日本帝国主義者たちの朝鮮侵略過程と植民地時代を見る清張の評価は、客観的な立場をとっていると言えよう。当時の日本帝国主義者たちは高宗皇帝を無能な国王に仕立てていたが、高宗皇帝をかなり肯定的に高く評価している。それから、老大な資料を集めてから、創作にかかる清張の創作態度が、韓国と関連のあるこれらの作品を通して確認できたといえよう。

終りに、日本の植民地時代にとられたほとんどの政策が、当時の韓国人たちには苛酷すぎたものであって、酷毒に弾圧したと作品の中で具体的に描写している。が、清張はこれらのことを、すべて事実として受け入れ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

 A study on Matumoto-Seicho
 -Focusing on his Korean related works-

Han, Ki-Ryoun

This thesis deals with the historical events related to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Chosun Dynasty, which are discussed in Matsumoto-Seicho's four writings dealing with Korea, except 「The Dark mist of Japan - Intrigue of the Chosun War」. This thesis also deals with Seicho's opinions and evaluations of the historical figures related to the events.

In 「Residents - General」 and 「The poet of the North」, most of the events and the characters correspond to actual historical realities.. Unlike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regarded Emperor Kojong as an incompetent ruler, Seicho evaluated Emperor Kojong positively, as seen from the historical facts and logic in the stories. . His writings on Korea reveal that Seicho worked diligently to research data before writing a story .

Finally, Seicho explicitly described in his writings that the policies implemen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unfair and harsh toward Korean people. Furthermore, he concluded that Japan had tortured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cruelly. Considering this, he recognized Japan's oppressive acts as facts.